



월탄스님이 방명록을 작성했다. 아래는 불교신문 임직원.



불교신문 창간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A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국민들의 지표가 되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래 100년 세계평화 등불 밝히길...”

이재오 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 ‘깜짝 방문’
성타스님 “불교신문 공로 누구도 부정 못해”

창간 50주년 행사 **이모 저모**

○...김의정 회장 눈물의 축하 불교계 단체를 대표해 축하를 한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불교신문 창간 50주년을 축하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선대가 인문사를 경영해 운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정제한 김 회장은 “많은 고충이 있었을 텐데도 50년이란 세월을 이끌어온 불교신문이 정말 대단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김 회장은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불교신문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히며 불교신문 발전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일찌감치 자리 메운 불자들 리셉션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불자들의 발길이 행사장으로 몰렸다. ‘차가 막힐까봐’, ‘빨리 오고 싶어서’, ‘먼저 와서 스님들 모시려고’ 등의 이유였다. 5시10분경 재가불자들의 대표격인 김의정 중앙신도회장도 도착했다. 김 회장은 1층에 마련된 VIP대기실을 두고 2층 행사장에 올라와 사자 스님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다. 동행한 보좌인에 따르면, 김 회장이 유독 일찌감치 서둘렀다고.

○...깜짝 방문한 이재오 특임장관 이날 리셉션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깜짝 방문해 환대를 받았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나라당 선진화 포럼 참석자 행사장을 방문했던 이 장관은 본지 리셉션 안내를 확인하고, 뒤늦게 식장을 찾았다. 예고 없는 참석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장관은 “불교계 최초 언론인 불교신문 창간 50주년을 축하한다”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포교지로서 앞으로도 불교발전과 사회갈등 치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리꾼 장사의 즉석 축하노래 이날 리셉션에는 소리꾼 장사의 씨도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과 불과 5분 거리에 집이 있다는 장사의 씨는 한 스님이 초청해 이번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 장사의 씨는 “불교신문 창간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불청객으로서 공양값은 하고 가겠다”고 밝히며 축가를 선물했다. 축가를 마치고 객석에서 “앵콜”이 쇄도하자 주저 없이 한국을 더 부르며 행사장 분위기를 더욱 고양시켰다.

○...김 도지사의 열정 어린 참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석해 불교신문 창간 50주년을 축하했다. 보좌진에 따르면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이 어려웠는데, 지사님께서 ‘불교신문 창간 기념행사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말씀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리셉션 참석자 명단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보선스님(중앙총회 의장) △법등스님(호계원장) △현웅스님(교육원장) △혜총스님(포교원장) △정문스님(중앙총회 부의장) △원담스님(기획실장) △효탄스님(문화부장) △계성스님(포교부장) △현담스님(총무국장) △재안스님(직할교구사무국장) △법기스님(감사국장) △교운스님(재정국장) △묘정스님(문화국장) △재경스님(교육국장) △광전스님(연수국장) △남전스님(포교국장) △정무스님(신도국장) △장적스님(총무원장) △월탄스님(원로위원, 청주 용화사) △성타스님(제11교구 본사 불국사 주지) △성웅스님(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자광스님(군중특별교구장) △정연스님(동국대 이사장) △홍성스님(법안사무처장) △이진호(동국대 일산병원장) △향적스님(전 불교신문사장, 경산 선봉사 주지) △토전스님(조계사 주지) △법애스님(개운사 주지) △주경스님(부석사 주지) △정범스님(전 불교신문 주간, 육천암 주지) △성현스님(형제사 주지) △성호스님(영덕사 주지) △정운스님(금강종합복지관장) △정덕스님(전국비구니회운영부위원장) △원공스님(덕림사 주지) △대오스님(흥국사 주지) △덕문스님(도솔암 주지) △지현스님(형량사 주지) △진관스님(교양암) △정문스님(가야사 주지) △정산스님(전 불교신문 주간, 서울 경국사 주지) △오심스님(월봉사 주지) △법정스님 △정현스님 △탁연스님 △일운스님 △재경스님 △법안스님 △장명스님 △상덕스님 △진홍스님 △지홍스님 △두관스님 △조경스님 △재환스님 △구과스님 △일원스님(생령나눔살림본부 이사장) △세민스님 △동광스님 △현종스님(삼성암 주지) △수암스님(화계사 주지) △동계스님(화계사) △허정스님(파주 약관사 주지) △일법스님(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승원스님(남태령 정각사 회주) △정관스님(중앙선거리위원회) △한현스님(소림사 흥무) △정관스님(수종사 주지) △영진스님(수종사) △법성스님(영택 저사 주지) △명규스님(영택 저사) △도서스님(호국지장사 주지) △태성스님(강화 정수사 주지) △동홍스님(설법연구원장) △대영스님(동대일산병원법당 지도법사) △덕조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종후스님(서울 노적사 주지) △지관스님(김포 용화사 주지) △호성스님(영월 용문사 주지) △동진스님(불교신문 논설위원, 남해 용문사 주지) △대영스님(양주 석굴암 주지) △일원스님(경도 운문사) △정호스님(송가사 주지) △덕수스님 △화홍스님(약사사) △법현스님(대고종 열린선원) △호연스님(간지중)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 △화홍스님(화엄종 총무원장) △대우스님(화엄종 총회의장) △박인주(사회통합수석비서관) △진영원(고용복지 수석비서관) △이성권(시민사회 비서관) △이재오(특임장관) △김문수(경기도지사) △이귀남(법무부장관) △정선태(법제처장) △정창수(국토해양부 차관) △설동근(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박선규(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화갑(광화문주당 대표) △원희룡(한나라당 사무총장) △최병국(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안성(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선영(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안홍준(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한나라당 국회의원) △최재성(민주당 국회의원) △정경진(민주당 국회의원) △이진화(서울시의회 의원) △권해정(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 부인) △김의정(중앙신도회장) △이연택(동국대 총동창회장) △하복동(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이현수(직할교구신도회장) △임희웅(조계종 포교사단장) △주영운(행원문화재단 이사장) △박상필(조계종 포교사회장) △김요주(한국여성불교연합회장) △이은영(불교여성개발원장) △이병길(국회직원불자회장) △김선근(한국불교학회 명예회장) △김용환(조계종출판사장) △안진권(나눔의집 소장) △안종서(청담정보통신교과) △사동욱(청담고등학교) △신대현(불교신문 논설위원) △허익구(청담사상연구소장, 불교신문 논설위원) △윤정화(민족사 대표) △신상길(고려대장경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정재에(경제정의실천교사민연합 상임운영부위원장) △송재은(동국대) △홍윤식(동국대) △김성호(불교미술관장) △권재환(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은석(이코노믹) △이재원(연우와 함께) △김정식(현대연상) △이병권(노적사 포교국장) △홍사성(월간유심 편집위원) △최승현(금강불교 국장) △정성원(현대불교 부국장) △김희표 · 이동혁(현대불교신문) △조용수(한국불교기자협회) △김영선(주간불교 부국장 불교신문) △최낙환(한국CTS 사장) △배성환(한국CTS 부장) △태성기업 황영주(태성기업 사장) △이용훈(대림기업 과장) △신문민(감로기회 대표) △신원식(종도개혁) △박규석(대승투어 사장, 불교시대 대표) △이현경(대정 유수필 이사) △이영주(카멜리아블라사 대표) △송현(아이디움 대표이사) △허길보(대불광 대표) △이혜(삼양사 실장) △오대수(법연결혼정보 대표) △김용세(인산사 사장) △이국복(청와대행정관) △신관호(동국대총동창회 사무국장) △장재호(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이사) △이은성(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 부이사장) △송원호(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 국장) △이주현(불교아카데미 이사) △이지범(고려대장경연구소 사무처장) △박우열(정암, 한국불교화쟁회 이사장) △유기순(전국사설사업단 재충연합회) △임정진(농인항만)

지역이 넓어 이의 참석자 명단 홈페이지(www.ibulgyo.com)에 게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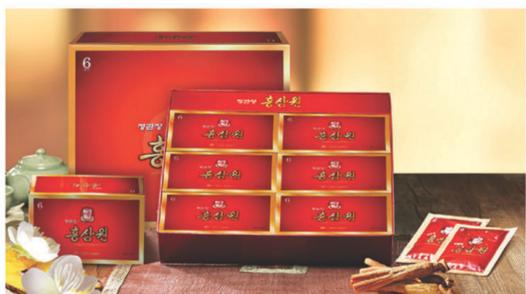
발원 기념함



불교신문 사장 선묵스님이 이현수 직할교구신도회장의 발전기금을 받는 모습. (사진 위) 음성공양을 선보인 도선사 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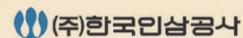
가장 소중한 분께 드리는 소중한 선물

정관장 프리미엄 홍삼음료 선물세트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전하십시오.



엄선된 국내산 6년근 홍삼농축액과 구기자, 대추, 건강, 계피 등 최고의 생약재료를 더해 자연 현대인들에게 건강과 활력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 판매대행 : (주) 덕성C&B
- 입금계좌 : 농협 100106-51-098395 국민 526501-01-260241 예금주 : ㈜덕성C&B
- 문의전화 : 02)2615-0183



(주)덕성이 책임집니다.

DM·정기간행물

(주)덕성은 DM, 정기간행물, 판촉물 등의 기획, 발송작업은 물론 서울 및 수도권지역, 부산 등 광역시에 직배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성C&B 운영시스템

